

군 사회복지(Military social work)의 현황과 발전방향

이 윤 수(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, 군사회복지 연구회 사무총장)

지금까지 군의 많은 사건과 사고, 그리고 정신건강의 여러 문제와 부적응을 통한 사기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있어왔지만, 2005년 1월 훈련소 인분사건과 6월 총기난사 사건은 성숙한 문화로 도약하는 국민과 정부, 군에게 큰 충격으로 자리 잡았다.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국군으로 개혁을 시작하는 군에서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실제적 개입은 복지서비스의 발달에 익숙한 국민과 군인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.

군 사회복지(Military social work)는 과거에서 현대의 군으로 발전해 온 우리 국군의 사기와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한 큰 목적 아래 개인과 가족들의 큰 희생으로 국민을 위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와 장교를 비롯한 모든 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회복지적 개입을 말한다.

군 집단은 사회의 여러 다른 집단 보다 독특한 특성과 더 많은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물질적, 제도적 복지 뿐 아니라 대인서비스와 정신건강을 위한 여러 개입과 개인과 집단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.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도 사회복지 개입을 시행하고 있으며, 21세기 개혁을 시도하는 우리 국군 또한 우리나라의 자체 군 사회복지 모형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다.

이런 희망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군 사회복지 상황을 정리해 보고,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군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.